

내년도 국비 2,490억원 확보

지난해보다 299억원 증가

【춘천】춘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2,49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내 국비보다 299억원(13.6%) 증가한 것이다.

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각 부처별 국비 지원액을 파악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2,400억원보다 90억원을 초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춘천시 당초예산 총 9,597억원의 25.9% 규모다.

이 가운데 복지 등 연례반복적인 지원사업 외 시가 추진하는 43개 신규, 주요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780억원으로 올해 676억

원보다 104억원(15%) 늘어났다.

신규 사업별 국비 확보액은 △ 캠프페이지 일원 하수도 정비 46억원 △서면 농촌지역 상수도 확충 17억원 △공지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5억원 △2016 국제레저대회 9억원 △온의 비위생매립지 정비, 신북 하수처리시설 증설, 퇴계 분구 등 3곳 노후 오수관로 설치 5억원, 약취방지시설 개량 5억원 등이다.

계속 사업으로는 △동춘천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96억원 △시립도서관 신축 49억원 △의암급경사지 정비 39억원 △동산면생활용수 공급 37억원 △만천분구 하수관로 정비 29억원 △신사

우도 새청마을 하수도 정비 30억원 등이다. 이 밖에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115억원 △북한강수계시설 정비 32억원 △중앙시장 저잔거리 조성, 풍물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25억원 △천환경농업바이오 인증시설 구축 10억원 △캠프페이지 주변마을 리모델링 8억원 △평화메모리얼 전망대 5억원 등도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부처 예산작업이 시작되는 지난 3월부터 부처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 간공조 등의 전방위 노력을 펼쳐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대부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무현기자 trustme@kwnews.co.kr

평창군 국비 1,227억 확보 사상 최대

목표 127억 초과 달성

【평창】평창군이 내년도 국비에 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227억 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2016년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는 모두 1,227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1,100억원에 비해 127억원을 초과 달성했고 올해 확보했던 1,065억원에 비해 162억원이나 많은 예산 규모다.

특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었던 올림픽 경기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국회 최종 심사 막판까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30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내년 확보된 주요 국비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준비를 위한 올림픽 개최지역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135억원,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101억원이 포함됐다. 또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 16억원,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 19억원,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7억원, 숙박시설 진입도로 20억원 등 올림픽 관련 예산만 395억원으로 전체 확보한 국비의 30%가 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38억원,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20억원,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14억원, 읍·면 소재

지 정비사업 88억원,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비 15억원이 편성됐다.

군은 지난 연초부터 매월 국비 확보 보고회를 열고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단장이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재정이 어려운 평창군이 지자체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비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며 “2018동계올림픽 준비와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

내년 2월 테스트이벤트 앞두고 '시간과 전쟁'

정선 알파인 경기장 건설 현장을 가다

"공사일정을 맞추려면 이른 열풍기까지 동원해 콘크리트를 양생해야 할 지경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지난 3일, 때 속까지 예이는 한기와 겨울비를 뚫고 정선 알파인 경기장 건설 현장인 정선 가리왕산을 찾았다. 이곳에선 내년 2월 7일 테스트 이벤트로 FIS알파인 남자 월드컵 대회가 개최된다.

평창 진부에서 정선 속암리 알파인 경기장 공사현장까지 이어지는 진일도로는 전정터를 방불케 했다.

좁은 도로는 넓히고 굽은 도로에 터널을 뚫는 작업이 도로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장은 이미 절토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속살을 드러낸 활강 코스가 눈에 들어왔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공사현장은 엄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공기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11월에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려 공사에 결정적인 차질을 주었다.

대형 중장비와 안전모를 쓴 현장 인부들이 바빠 움직였다. 중장비가 땅을 고르고 인부들은 우비를 입고 나와 시설물 공사에 매달렸다. 비가 내려 안전사고 위험도 있지만 두달 앞으로 다가온 테스트 이벤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악전

곳은 날씨속 터널공사
곤돌라·제설기 설치 한창

11월 현재 공정률 50%
60%까지 올리기 '사활'

고투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생명이 공사관계자들의 속이 성할 리 없었다.

장용수 감리단장은 "11월에만 18일째 비가 내렸다"며 "테스트이벤트까지 얼마남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업을 해도 공기를 맞추기 벅한데 날씨까지 도움을 주지 않아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하려면 슬로프와 곤돌라, 제설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 현재 슬로프는 공사가 마무리됐으나 곤돌라와 제설시스템 설치작업이 남아있다. 곤돌라를 정상부까지 설치하려면 모두 22개의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까지 16개의 타워가 설치됐다.

FIS에서 요구하는 120cm의 제설량을 맞추기 위해서 슬로프에 총 77대의 제설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60대의



정선군 속암리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공사현장이 난 공사 구간이 많고 곳은 날씨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선/안병용

제설기가 설치됐다. 제설을 위한 응수 및 전기 공급장치도 필요하다. 인근으로 대천에서 5만대의 하천수를 퍼올려 저수지를 가득 채웠다.

주말을 반납하고 야간공사를 강행한 끝에 지난 11월 말로 공정률 50%를 맞췄다. 하지만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정률을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남은 두달동안 공정률을 10% 높여야 하지만 앞으로 폭설과 강

추위가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공사 가능 일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도는 테스트이벤트를 위한 공사준공 시기를 내년 1월 20일로 맞췄다. 당초 1월 10일로 계획했으나 계속되는 곳은 날씨에 열흘 정도 일정을 늦췄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가 계속되면 공사 준공 일정이 더욱 미뤄질 공산이 크다. 도는 테스트이벤트 개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열풍기를 준비하는 등 겨울철 공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곤돌라가 설치돼야 조직위에서도 FIS알파인 남자 월드컵 대회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 조직위에서도 곤돌라 설치작업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헬기와 트랙터 등 알파인 경기장 정상까지 대회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정선/백오인 105in@kado.net

춘천시 내년 국비확보액 14% 증가

목표 90억 초과 2490억

춘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올해보다 13.6% 오른 2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춘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각 부처별 국비 지원액을 파악한 결과 당초 목표였던 2400억원보다 90억원을 초과한 2490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299억원 (13.6%) 증가할 수 있다.

신규사업별 국비 확보액은 △켄트페이지 일원 하수도 정비 46억원 △서면 농촌지역 상수도 확충 17억원 △공지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5억원 △2016국제레저대회 9억원 △노후 오수관로 설치 5억원 △악취방지시설 개량 5억원 등이다.

계속 사업으로는 △동춘천산

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96억원 △시립도서관 신축 49억원 △의암 급경사지 정비 39억원 △동산면 생활용수 공급 37억원 △만천분구 하수관로 정비 29억원 △신사우도 새청마루 하수도 정비 30억원 등이 있다.

이밖에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115억원 △북한강 수계시설 정비 32억원 △중앙시장 저자거

리 조성-풍물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25억원 △친환경 농업바이오 인증시설 구축 10억원 △켄트페이지 주변마을 리모델링 8억원 △평화대모리열전량대 5억원 등도 반영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방위 노력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대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춘천/김정호

평창군 내년예산 1227억 역대 최고

당초 목표보다 127억 ↑

지역 현안사업 추진 단력

평창군이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국비를 확보,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군은 내년도 국비확보액이 사상 최대인 1227억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 목표로 잡았던

1100억원보다 127억원이 많고 올해 예산 확보액 1035억원보다도 192억원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재해 위험지구개선사업 38억원, 홍천 하천재해예방 20억원, 평창강 생태하천사업 14억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88억원, 3개소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0억원, 용평체목공원조성 8억원,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15억원 등이다.

평창군은 올해에 이어 오는 2017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신규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매월 보고회를 통해 상황

을 점검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국비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며 "연초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명과 이해를 구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여야 구분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평창/신현태